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313

JCCT 2022-1-36

<고당신녀전설 분석>을 통한 중국문화 교육 방안

An Educational Plan for Chinese Culture through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高唐)shennu(神女)」

김성희*, 최은선**, 박남제***

Sung-Hee Kim*, Eunsun Choi**, Namje Park***

요약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문학의 융합 범위는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문학과 과학적, 실증적 이론을 융합하여 논리적이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미래 창의 융합인재로의 양성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신화전설은 인류가 문화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종교, 철학, 예술, 과학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따라서 학문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소위 융합의 시대를 살았던 고대인들의 의식을 통해 현인류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원이둬(聞一多)가 <고당신녀 전설>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통해 중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는 신화 전설을 통해 민족 문화의 원류를 모색하고 기원 시기의 민족 문화 관념을 복원하여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중국의 신화 전설에는 현대 중국의 문화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 줄 것이며, 다양한 고문의 내용을 논의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중국 고문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어 : 《시경·후인》, <고당부>, 중국 시조(始祖), 중국문화

Abstract Recently, the keyword 'convergence' has emerged in the education field. The voice of demand for the humanities is also increasing. The range of convergence of the humanities is gradually spreading to various fields such as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the arts field. And also, the trend is to nurture the future creative convergence talent with logical, comprehensive, and creative thinking through the fusion of humanities, scientific, and empirical theories. Myths and legends contain the content of humanity's culture creation and deal with matters such as religion, philosophy, art, and science. Therefore,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the ancients who lived in the so-called convergence era when academic differentiation did not occur, it will be possible to reflect on the appearance of sages.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for educating Chinese culture through the analysis of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高唐)shennu(神女)> by Wen Yi-Duo, a famous Chinese scholar. He sought to find the origin of Chinese culture through myths and legends and to find national identity by restoring the concept of national culture in the period of origin. The myths and legends of China are closely related to the cultural phenomena of modern China, which will further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China.

Key words : 《ShiJing·HouRen》, <GaoTangFu>, Legendary Founding Father of China, Chinese Culture

*정회원,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정회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컴퓨터교육전공 박사과정 (참여저자)

***정회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컴퓨터교육전공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31, 2021 /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namjepark@jejunu.ac.kr

Dept. of Computer Education, Teachers College, Jeju National University

I. 서 론

급변하는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 현장에서는 ‘융합’이라는 키워드가 대두되면서 인문학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인문학과 융합의 범위는 예술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 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인문학과 과학적, 실증적 이론을 융합하여 논리적이고 종합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력을 갖춘 미래 창의 융합인재 양성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신화전설은 인류가 문화를 창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종교, 철학, 예술, 과학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일체가 되었던 시대 정신이 담긴 신화전설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 다루게 될 텍스트는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원이뉘(聞一多)의 <고당신녀전설 분석(高唐神女傳說之分析)>이다. 그는 중국이 혼란했던 근대 시기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던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제시했다. 또한 ‘고매(高禰)’라는 매개체를 통해 각 민족의 시조(始祖)를 동일화하여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민족 문화의 원류를 모색하여 기원 시기의 민족 문화 관념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근대 시기 한족(漢族)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족을 통합하고자 했던 의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의 중국문화 현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중국에 대한 이해도를 한층 높여 줄 것이며, 다양한 고문의 내용을 논의의 근거로 제시하므로 중국 고문 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I. 이론적 고찰

1. <고당신녀전설 분석> 소개

<고당신녀전설 분석>은 <고당부(高唐賦)>의 내용을 바탕으로 엮어나가며, 고당신녀를 통해 민족의 기원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당부>는 초나라 궁정시인 송옥(宋玉)이 지은 이야기이며, 초(楚)나라 양왕(襄王)이 송옥과 함께 운몽택(雲夢澤)에서 놀 때 나누었던 양왕의 ‘운우(雲雨)’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은 작품이다. 그 내용은 옛날 양왕의 부친인 회왕(懷王)이 고당에서 놀다가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 나타난 무산(巫山)의 신녀

(神女)와 동침한 일과 고당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

<고당신녀전설 분석>은 <고당부>의 내용을 출발점으로 삼아 《시경(詩經)》, 《초사(楚辭)》, 《한서(漢書)》 등 다양한 고문헌 속에서 각 민족의 선조를 찾고, 이들 선조의 근원을 밝혀 모두가 하나의 기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2.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교육적 가치

신화전설은 고대 사회나 원시 사회의 집단 의식이 반영되어 있어, 한 민족의 신화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민족의 구성원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신화는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의 근원이 되며, 신화 속의 집단적 무의식은 구성원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이 위기를 처할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 정신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 <고당신녀전설 분석>은 <후인>에 나오는 여인과 <고당부> 신녀를 통해 공통 특징을 추출하여 중국 북방 문학을 대표하는 시경과 남방 문학을 대표하는 초사의 작가가 지은 고당부를 연결지으며 문학의 기원을 통일하고자 한다. 또한 연나라, 송나라, 초나라의 고매신의 공통적인 역할과 특징을 통해 민족의 기원을 동일시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근대 시기 중국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국 신화를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중국 신화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므로 신화전설에 대한 교육은 현대 중국문화를 읽어내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III. <고당신녀전설 분석>에 나타나는 중국문화 교육 요소

1. 《시경·후인》과 <고당부> 내용 소개

<고당신녀전설 분석>에서 중요한 내용인 <시경·후인>과 <고당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음은 <시경·후인>의 내용이다.

저 후인들은 彼倅人兮

어둠에도 긴 창 짧은 창 메고 있네. 何戈與楨

저 간사한 자들 중에는 彼其之子

대부(大夫) 행세하는 자 수백 명이네. 三百赤芾

사다새가 어살에 있는데 維鷦在梁

날개도 적시지 않네. 不濡其翼
 저 감사한 자들은 彼其之子
 그들 옷이 행동과 어울리지 않네. 不稱其服

사다새가 어살에 있는데 維鷦在梁
 부리도 적시지 않네. 不濡其喙
 저 감사한 자들은 彼其之子
 그들 은총이 행동과 안 어울리네. 不遂其媾

몽게몽게 구름 일더니 蒼兮蔚兮
 남산에 아침 무지개 났네. 南山朝隕
 어리고 예쁜 婉兮變兮
 소녀들은 굶주리고 있네. 季女斯飢[2]

다음은 <고당부>의 내용이다.

초양왕이 송옥과 운몽(雲夢)의 들에서 노닐었다. ‘조운지관(朝雲之館)’을 바라보니 상서로운 기운이 서려있고, 순식간에 모습을 끊임없이 바꾸자 왕이 무슨 기운이냐고 물었다. 송옥이 답하기를 “예전에 선왕께서 고당(高唐)에서 노닐다가 피곤함을 느껴 잠시 낮잠을 잤는데, 꿈에서 한 부인을 만났다. 그 부인이 말하기를 ‘저는 황제의 계녀(季女)이며, 요희(瑤姬)라고 합니다. 갑자기 죽어서 무산의 대에 묻혔습니다. 임금께서 놀러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잠자리 시중을 들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이에 왕은 그녀를 총애했다. 떠나면서 말하기를 ‘첩은 무산의 남쪽 높은 언덕의 험준한 곳에 사는데, 아침에는 구름이 되었다가 저녁에는 비가 되어 아침저녁으로 양대(陽臺)의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아침에 그곳을 보니 과연 그 말과 같았다. 그래서 그녀를 위해 사당을 세우고 ‘조운(朝雲)’이라고 불렀다.

楚襄王與宋玉遊於雲夢之野. 望朝雲之館. 有氣焉, 須臾之間, 變化無窮. 王問是何氣也. 玉對曰, “昔先王遊於高唐而晝寢. 夢見一婦人, 自雲, ‘我帝之季女, 名曰 瑤姬, 未行而亡, 封於巫山之臺. 聞王來遊, 原薦枕席.’ 王因幸之. 去乃言‘妾在巫山之陽, 高丘之阻, 旦爲朝雲, 暮爲行雨, 朝朝暮暮, 陽臺之下.’ 旦朝視之如言, 爲之立館, 名曰‘朝雲’[3].

2. 《시경·후인》과 <고당부>의 공통 요소를 통한 중국 문화 이해

<고당신녀전설 분석>에서는 북방문학의 대표로 시경을

남방문학의 대표로 고당부를 제시하며, 두 작품의 공통요소를 밝힌다. 이 글이 쓰여 졌던 당시, 혼란했던 근대 시기의 중국은 한족을 중심으로 한 정신의 우수성을 강조하고자 했으며, 상대적으로 남방문학이 더욱 풍부하고 우수했기 때문에 북방문학과 남방문학을 연결지어 문학의 기원을 동일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의 표 1은 《시경·후인》과 <고당부>의 공통요소이다. 어떠한 공통요소를 통해 작품의 성격을 동일시하는지 살펴해보겠다.

표 1을 살펴보면, 《시경·후인》과 <고당부>를 4가지 공통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공통 1은 ‘계녀(季女)’라는 동일한 인물의 등장이다. 공통 2는 여성이 남성을 그리워한다는 의미의 내용이 들어있으며, 공통 3은 ‘조제(朝隕)’와 ‘조운(朝雲)’은 ‘제’와 ‘운’을 동일한 단어로 간주하여 동일한 인물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둘 다 ‘여신의 화신(化身)’을 뜻하며, 무산도 남쪽에 위치해 있어 인물의 소재지도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공통 4는 《시경·체동》의 설명을 빌어 후인에 나타나는 ‘조제(朝隕)’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 고당부에서의 ‘조운(朝雲)’도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이므로 동일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4] 이러한 공통점을 제시하며, 시경이 앞서 등장했기 때문에 남방문학인 고당부는 시경의 영향을 받아서 창작된 작품이라고 주장하며 남방문학과 북방문학의 기원을 모호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난다. 이는 근대시기 혼란했던 중국의 정체성을

표 1. 《시경·후인》과 <고당부>의 공통 요소[5]

Table 1. Common elements of 《Shi-Ing-HouPen》 and <Gaotangfu>

작품	후인시	고당부
공통 1	季女	季女
공통 2	季女斯飢	願薦枕席
공통 3	‘조제(朝隕)’는 남산(南山)에 있음	‘조운(朝雲)’은 무산(巫山)에 있음
공통 4	「체동」의 “아침에 무지개가 서쪽에 떠 있는데, 식전 내내 비가 오네 (朝隕於西, 崇朝其雨)”에 따르면, 「후인」의 ‘朝隕’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의 ‘朝隕’도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다고 해석.	“아침에는 구름이 되어 다니고 저녁에는 비가 되어 다닌다 (朝爲行雲, 暮爲行雨).”라고 하며 ‘朝雲’이 비를 내릴 수 있는 존재로 해석.

확립하기 위한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는 한족을 제외한 주변민족의 다양성을 몰살하는 방향으로 유도되며, 현재까지 이어져 소수민족과의 문제로 연결된다. 이와 같은 문학의 기원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신화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어 신화 속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현재를 읽어낼 수 있는 교육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3. 다양한 민족의 시조를 통한 중국문화 이해

중국의 유명한 학자인 곽말약은 『묵자(墨子)·명귀(明鬼)』 편의 내용은 고매신(高禘神: 인류 선조의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과 일치하며, 조, 사직, 상림, 운몽은 각 나라의 고매신이라고 했다[6].

즉, 정리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또한 《예기(禮記)·월령(月令)》의 내용에 대해 《춘추(春秋)》에서 장공(莊公) 33년에 장공이 제(齊)나라로 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관람하였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고매신에게 제사 지낼 때 천자가 9명의 후비를 거느리는 모습은 비슷하므로 사직(社稷)은 곧 제나라의 고매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풍(鄘風)>은 <위풍(衛風)>이고, 위(衛)나라와 송(宋)나라는 모두 은(殷)나라 후손이기 때문에 상림(桑林)이 송나라의 고매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몽(雲夢)은 고당신녀가 사는 곳이며, 초(楚)나라 선왕(宣王)이 신녀와 정을 통한 것은 고매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과 유사하므로 운몽은 초나라의 고매신임을 알 수 있다. 연(燕)의 선조는 비록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묵자(墨子)》는 그것이 제의 사직과 송의 상림, 초의 운몽과 같으니, 조(祖)는 연의 고매신이라고 해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한다.[7]

표 2. 각 민족에 따른 해당 고매신
Table 2. Ancestor worship(Gaomei-god) of each ethnic group

민족명	해당 고매신	비고
하(夏)나라	도산씨(塗山氏)	《묵자(墨子)·명귀(明鬼)》 편
연(燕)나라	조(祖)	
제(齊)나라	사직(社稷)	《묵자(墨子)·명귀(明鬼)》 편
송(宋)나라	상림(桑林)	
초(楚)나라	운몽(雲夢)	

《노사(路史)·여론(餘論)》에서는 “고매는 인간의 선비(先妣:선조의 어머니)이다”라고 고매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다. <고당신녀전설 분석>에서 하나라 사람의 선비가 도산씨라는 정의를 내리며, 《사기(史記)·하본기(夏本紀)》의 <색은(索隱)>에서는 <세본(世本)>을 인용하여 “도산씨의 이름은 여와이다.”라고 했고, 《노사(路史)·후기(後記)》 2는 여와를 신매(神媒)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하나라 사람들의 고매가 그 선비에게 제사를 지낸 증거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하(夏)나라 선조의 다양한 명칭
Table 3. Various names of Xia(夏) ancestors

문헌명	내용	정리
<고당신녀전설 분석> 6장 고당과 고양, 7장 고당신녀와 도산씨	하나라 우는 도산씨이다.	하나라 선비-도산씨, 도산씨 이름-여와, 여와-신매라고 칭함
노사(路史)·여론(餘論)2	고매는 인간의 선비(先妣:선조의 어머니)이다	그래서, 하나라 선비는 신매이자 고매신, 도산씨, 여와가 됨.
<세본(世本)>	도산씨의 이름은 여와이다	

하나라 선비를 여와라고 하는 것은 중국 창조 신화의 주인공인 여와를 아직 전설 속의 왕조로 여겨지는 중국 최초의 왕조인 하나라의 선비로 여김으로써 하나라 왕조 존재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4는 고대 문헌에 나타나는 하·은·주왕조의 시조에 대한 기록인데, 이를 통해 각 민족의 시조를 확인 할 수 있다.

《예기·월령》 정현 <주>의 ‘융간’은 은왕조 시조인 설(契)의 어머니이자, 유융씨 딸 간적을 말한다. 간적은 우연히 길에서 현조(제비)가 떨어뜨린 알을 삼키고 임신하여 설을 낳았는데. 이 내용은 시경의 상송(商頌)에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간적은 은왕조의 시조이자. 고매이며, 위 내용을 통해 은나라 사람들이 선비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송·비궁》 <전>에는 주나라 시조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비궁은 주나라 시조 후직의 어머니 강원을 모신 사당을 말한다. 강원은 고신씨의 왕비이며, 주왕조의 시조인 후직의 어머니이다.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므로, 주왕조 또한 고매에게 제사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 고대 문헌 속 하은·주 왕조의 시조에 대한 기록
 Table 4. Records of the ancestors of the Xia(夏)·Yin(殷)·Zhou(周) dynasty in ancient documents

문헌명	내용	정리
《예기·월령》 정현의 <주>	고신씨의 시절에 현조가 알을 낳았는데 용간(娥簡)이 그걸 삼키고 설(契)을 낳았다. 나중에 왕이 매관(媒官)으로 삼아 상서롭게 여기며 그곳에 사당을 지었다	간직은 은나라 사람들의 고매이며, 선비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증거
《예기·월령》 <소(疏)>	용 간직이 세기 봉황을 삼킨 뒤 왕이 매관으로 삼아 귀하게 여기고 천제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고매라고 칭했다	비공은 고매의 궁이자 강원(姜嫄)의 사당이고 이는 주나라 사람들의 고매신이며 선조에게 제사를 지낸 증거
<노송(魯頌)·비궁(閼宮)> <전(傳)>	비공은 선비 강원의 사당이다	

IV.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문화 교육적 활용 방안

1. 교육대상 선정

<고당신녀전설 분석>은 고대와 현대의 중국문화 이해뿐만 아니라 고문을 통한 중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성인 중국어 학습자와 중어중문학, 중국문화, 중국어교육 등 중국어 기초가 있는 중국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고당신녀전설 분석>을 교육의 매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내용에 남녀 간의 신체적 접촉을 통한 화합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미성년 학습자로 하여금 기시감을 자극하고 주제에 대한 이해보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교육의 대상을 성인 학습자로 한정하였다.

2. 교육 방안 제안

<고당신녀전설 분석>을 통해 제안하는 교육 방안은 P.R. Moran의 문화 교육 모델을 기반으로 그림 1과 같이 설계되었다[7].

본 모델은 방법 이해(knowing how)-대상 이해(knowing about)-의미 이해(knowing why)-자기 이해(knowing oneself)



그림 1. <고당신녀전설 분석>을 활용한 문화 교육 방안
 Figure 1. Culture education plan using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高唐)shennu(神女)>

의 단계로 나누어 작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육 방안은 총 4차시로 구성되었으며, 문화 교육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도덕적 관념과 연계된 방법 이해(knowing how)는 제외하고,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상 이해(knowing about), 의미 이해(knowing why), 자기 이해(knowing oneself)를 차용하여 설계하였다.

1) 대상 이해-<고당신녀전설 분석> 지식 습득

1차시에서는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한다. 본 차시의 목적은 <고당신녀전설 분석>에서 다루는 《시경·후인》과 <고당부>에 나타나는 문화 정보를 이해하고 문화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다.

도입에서는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유발을 위하여 《시경·후인》과 <고당부>와 관련한 영상을 함께 시청한다. 시청 후에는 발문을 통하여 학생들의 체험과 경험을 학습과 배움으로 이끄는 과정을 거친다. 도입 후 전개 과정에서는 본격적으로 본문을 이해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문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정된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고문 한 자 한 자의 의미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화 교육보다는 단순한 한자 이해 수업에 그칠 수 있으니 주의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플립러닝(Flipped Learning) 방식을 차용하여 학생들이 미리 본문에 나타나는 한자와 단어를

학습해오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리 과정에서는 이해한 본문을 바탕으로 학급 동료와 함께 줄거리를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시간에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으며, 동료의 의견을 통해 자신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2) 의미 이해 - <고당신녀전설 분석> 숨은 의미 탐색
 의미 이해 - <고당신녀전설 분석> 숨은 의미 탐색
 은 2차시와 3차시 두 차시에 걸쳐 진행되는데, 2차시에서는 작품 속 공통적 요소와 시조를 표현하는 공통적 기록을 발견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2차시의 도입 부분에서는 張曉失이 편찬한 《시경동물필기(詩經動物筆記)》를 통해 《시경》 속 동물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맞춰보는 시간을 가진다[8]. 본 도입을 통해 글뿐만 아니라 그림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도와 비화(祕話)를 이해하며 학습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퀴즈로 진행되는 도입을 마친 후 전개 부분에서는 본격적으로 《시경·후인》과 <고당부>에 나타난 공통 요소와 《사기(史記)·하본기(夏本紀)》, 《노사(路史)·후기(後記)》에 나타난 민족의 시조에 대한 학습을 진행한다. 교수자는 일방적으로 이러한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여 이해에 다다를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수자는 여러 요소가 숨겨져 있는 문헌을 간추려 학습자에게 배포하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하거나 여러 도서를 제공하여 학습자의 정보 습득과 탐구에 협조한다. 정리 단계에서는 각자 문헌에서 발견한 요소와 숨은 의미를 발표하며 학습자 서로의 이해를 돕는다.

3차시에서는 2차시에서 학습한 <고당신녀전설 분석>, 《시경·후인》, <고당부>의 내용을 토대로 <고당신녀전설 분석> 속 숨은 문화적·교육적 의미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본 차시를 통해 학습자들은 중국 문화적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고당신녀전설 분석>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중국문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가능하다. 3차시의 도입은 전개를 위한 선행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스토리보드 작성을 수행한다. 전개 과정에서는 스토리텔링을 진행하게 된다. 창의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기초 설계가 수반된다. 스토리텔링은 역할극, 만화,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스토리보드에 조별로 그 형태를 정하여 정해진 형태에 맞도록 장면과 컷 번호, 말풍선이나 캐릭터의 대사로 나타낼 대사, 각 장면에서 사용되는 시간 등을 미리 정하여 작성한다. 전개 단계에서는 스토리텔링 작품을 제작한다. 이 작품은 2차시에서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품을 통한 고대 중국인들의 문화를 보여주거나 원이뒤의 전통 문헌에 대한 해석과 현대적 해석을 비교하여 본인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구성한다. 혹은, 중국 고대민족의 시조에 대한 탐구 학습을 기초로 원이뒤가 <고당신녀전설 분석>에서 보여주는 시조의 연결과정을 이해하고 전통문화가 현대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타내도록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들이 단순히 《시경·후인》과 <고당부>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시경·후인》과 <고당부>에 나타난 공통적 요소를 이해하고, 중국 왕조의 시조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며 학습자 스스로 이해한 내용을 가지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제작한 스토리텔링 작품을 선보이면서 마무리한다.

3) 자기 이해-<고당신녀전설 분석>, <단군신화>

마지막 4차시에서는 우리나라의 시조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단군신화>와 중국의 <고당신녀전설 분석>을 비교하며 중국문화가 우리나라 역사와 신화에 주는 의미를 인식한다.

4차시의 도입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단군신화> 내용을 학습자끼리 나눠본다. 학습자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단군신화> 내용을 서로 말해보며 달리 이해하고 있는 내용을 발견해본다. 전개 단계에서는 도입 단계에서 발견한 <단군신화>에 나타난 다른 내용에 대해 그 이유를 밝혀보고 <고당신녀전설 분석>과 중국 고문에 나타난 시조에 관한 기록들을 비교해본다. <단군신화>는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삼국유사》, 《계왕운기》, 《조선왕조실록》, 《응제시주》 등 다양한 문헌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웅녀(熊女)와 환웅(桓雄)과의 관계에 대해 문헌 사이에 다른 해석과 기록이 존재한다. 《묵자(墨子)·명귀(明鬼)》, 《노사(路史)·여론(餘論)》과 같은 중국 고대 문헌 속 왕조에 대한 기록을 비교하고 특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은 우리나라와 중국문화를 비교하며 새로 알게 된 학습 내용을 공유하며 마무리한다.

3. 혁신적 교수학습 방법과의 연계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문화 교육 방안은 최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교실 환경에 맞춰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연계하여 확장될 수 있다.

먼저, 대상 이해-〈고당신녀전설 분석〉 지식 습득 단계에서는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내용을 이해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는데, 이 수업에서는 메타버스(Metaverse) 기술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메타버스는 3차원의 가상 세계로 역사, 예술, 문화 교육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9]. 논문에서 제안하는 1차시 수업에서 VR과 AR을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이해를 도와 학습자들로 하여금 고대 문헌 속 이야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선사할 수 있다.

의미 이해-〈고당신녀전설 분석〉 숨은 의미 탐색 단계에서는 창의 스토리텔링을 접목할 수 있다. 창의 스토리텔링은 기존의 스토리텔링 기법에 창의적 요소를 접목한 교수학습방법이다[10]. 본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역할극이나 뉴스,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상, 만화 등 다양한 소재로 나타내면서 이해에 심도를 더하며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자기 이해-〈고당신녀전설 분석〉, 〈단군신화〉 단계에서는 토론 방식을 접목할 수 있는데, 토론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을 발생시켜 의견이 다른 상대방과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이는 중국 고전을 통한 대학 교육에서도 활용되며 공동체 속 인간관계 형성과 과거 사회와 현재 사회를 잇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11-16]. 우리나라의 신화 속 이야기와 중국 신화 속 이야기는 의견이 분분하며 해석이 다양하여 많은 사람들의 논의를 이끌어내는 주제이다. 이에, 토론을 접목하여 상호 소통적 논증을 통해 논리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학습의 내용을 오롯이 학습자 본인의 것으로 전환하는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고당신녀전설 분석〉의 중국 고대 문헌을 통한 중국 문화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P.R. Moran의 문화 교육 모델을 차용하여, 대상

이해(knowing about), 의미 이해(knowing why), 자기 이해(knowing oneself)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각 과정의 주안점을 살펴보면, 대상 이해 과정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고문을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고, 의미 이해 과정에서는 〈고당신녀전설 분석〉에 담긴 의미를 모색하는 과정인데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각자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하며 고대문화와 현대문화와의 연계성을 파악해가는 과정을 학습하는 것이다. 자기 이해 과정에서는 한국 신화와 비교함으로써 두 나라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습방안은 메타버스, 창의 스토리텔링기법 등 혁신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연계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최근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교육에 종합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창의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교육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과 시범 교육에 대한 의견 적용을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교육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References

- [1] E. Hwang, "(A) Study on The method of myth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Chungcheongbuk-do, Korea, February 2007.
- [2] H. Kim, "A new translation of ShiJing," Seoul, Korea, Myengmundang, 2010.
- [3] Y. Kim, 《Wen Xuan(文選)》, Seoul, Korea, Somyong Publishing, 2010.
- [4] S. Kim, "Wen Yi-duo(聞一多)"s discourse on mythology in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高唐)shennu(神女)」,"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42, No. 3, pp.181-201. June 2021. <https://doi.org/10.22947/ihmj.2021.42.3.006>
- [5] S. Kim, "Wen Yi-duo(聞一多)"s discourse on mythology in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高唐)shennu(神女)」," *The journal of humanities*, Vol. 42, No. 3, pp.181-201. June 2021. <https://doi.org/10.22947/ihmj.2021.42.3.006>
- [6] Y. Wen, "Analysis of the Legend of the Gaotang (高唐)shennu(神女)," *Myth and poetry*, Beijing Century Wenjing Culture Communication Co., Ltd, pp.69-97, May 2006. <https://doi.org/10.16511/j.cnki.qhdxxb.1935.04.002>
- [7] P. R. Moran, "Teaching Culture: Perspectives in

- Practiece,” Boston: Heinle & Heinle. 2001.
- [8] X. S. Zhang, “Animals in Shijing(詩經動物筆記)” Beijing: Chemical Industry Press. 2019.
- [9] H.K. Hong, “Exploratory Study for Educational Application of Metaverse” *The Korean Society of Culture and Convergence*, Vol. 43, No. 9, pp.1-21, September 2021. <https://doi.org/10.33645/cnc.2021.09.43.9.1>
- [10]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f Creative and Convergence Textvooks Using Creative Storytelling Techniqu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7, pp.143-151, July 2021. <https://doi.org/10.15207/JKCS.2021.12.7.143>
- [11] I. Jung, “A Study on the Educational methods of Communication through Chinese classics -- focused on the concept of "Goodness" in Daehak--,”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1, pp.461-168, February 2021. <https://doi.org/10.17703/JCCT.2021.7.1.461>.
- [12] E. Choi and N. Park,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ffect of Creative Storytelling Textbooks Incorporating International Baccalaureat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2, No. 1, pp.143 - 151, Jan. 2021. <https://doi.org/10.15207/JKCS.2021.12.1.143>.
- [13] J. Kim and N. Park, “A Face Image Virtualization Mechanism for Privacy Intrusion Prevention in Healthcare Video Surveillance Systems,” *Symmetry*, Vol. 12, No. 6, pp.891, June 2020. <https://doi.org/10.3390/sym12060891>.
- [14] D. Lee and N. Park, “Blockchain based privacy preserving multimedia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using secure Merkle tree,” *Multimed Tools Appl* Vol.80, pp.34517 - 34534, March 2020. <https://doi.org/10.1007/s11042-020-08776-y>.
- [15] E. Choi and N. Park, “Can Online Education Programs Solve the Cyberbullying Problem? Educating South Korean Elementary Students in the COVID-19 Era,” *Sustainability*, Vol. 13, No. 20, pp.11211, October 2021. <https://doi.org/10.3390/su132011211>.
- [16] J. Kim, S. Ryu, and N. Park, “Privacy-Enhanced Data Deduplication Computational Intelligence Technique for Secure Healthcare Applications,” *CMC-Computers, Materials & Continua*, Vol. 70, No. 20, pp.4169 - 4184, Sep. 2021.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9S1A5C2A04083374),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Creativity(KOFAC)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OE).